

경북도, 산불 피해복구 현황·혁신적 재창조 계획 발표

1조8310억 복구지원비 확보… 이철우 “돈이 되는 산 만들 것”

〈경북도지사〉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나서
영덕·청송 등 관광형 명품마을 조성
이 지사 “피해주민 일상 회복 최선”

경북도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 브리핑에서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 상황, 특별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적극적인 건의 끝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8310억 원의 복구지원비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기존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를 지급했다. 또 2430세대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기부금 약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 구호소 현장 지원, 임시주택 건립 등에 활용됐다.

추석을 앞두고 이재민 특별지원도 시행됐다. 자원봉사단을 통한 이·미용 봉사, 명절 선물 지원, 임시주택 소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와 피해지역 재창조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전기·안전 점검 등이 이뤄졌으며, 심리 상담과 맞춤형 의료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산불 피해복구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부는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포럼, 산림재난혁신단으로 구성돼 마을·농업·산림 부문의 복구를 전담한다.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작업도 마쳤다.

전소 피해를 입은 24개 마을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특별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영덕 노물리·석리,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형 명품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 영농 기반을 복구·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내년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

법에는 경북도가 요구한 내용도 다수 반영됐다.

경북도가 제안한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구상’에는 공동체·산림생태·문화관광·농업·환경에너지 등 5대 분야 38개 전략 사업이 포함됐다. 안동 산림휴양복합단지, 의성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 청송 산림미래혁신센터, 영양 산재스마트팜 혁신단지, 영덕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 등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투자펀드’ 등 민간투자사업과 특별법이 시너지를 내 피해지역 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라는 비전은 경북도정의 핵심 과제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추진

포항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에 동해면과 송라면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으로 동해면과 송라면에 각각 28호 규모의 맞춤형 주택단지와 생활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 간 교류와 상생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청년 세대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농촌 마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완도군, 어업인 안전장비 지원

완도군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는 총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전까지 어업인들이 안전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산청군

권역형 DMO 공모 사업 선정

산청군은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과 함께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이번 공모는 올해 첫 시범 사업으로 전국 1개소를 뽑았다.

4개 군은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조직을 육성한다.

사업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 협력단과 공동 추진하며 국비 2억 5000만원, 지방비 2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투입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역’ 사업 본궤도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등 협력
서부산 복합 환승시설 역할 기대

부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등과 부전~마산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가칭) 신설을 위한 위·수탁 협의를 완료하고,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역사 신설에 따른 기관별 업무 분담을 확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관계기관 간 기본적인 협력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면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며, 각 기관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인허가, 민원, 지장물 이설 등의 행정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비 전액 부담 등 사업관리를 총괄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설계 및 시공, 인허가 신청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운영·유지관리 등을 담당한다.

시는 지난 3월 국토부 역사 신설 승인 이후 각 기관과 설계, 시공, 운영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고,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역은 제2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로 구축돼 역세권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에코델타시티역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환승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강서선(트램), 가덕도 신공항 철도(부산신항) 환승시설로서, 서부산의 중심적인 복합 환승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목포시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벤처와 함께 ‘지방 살리기 및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번째부터)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한성숙 중기부장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목포시, 중기부·벤처투자 자매결연 협약

지방 소멸위기 대응… 소비진작 도모

목포시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벤처와 함께 ‘지방 살리기 및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 및 내수 진작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연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행사 개최 및 휴가철 직원 방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홍보 ▲지역 특산물 소비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경북도가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억원이 감소한 1717억원이다.

도는 특별징수 활동을 벌여 상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 자산을 조사하고 압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조사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채납자에 대한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하사

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 체납액 1758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528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경북도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에서 체납자에게는 단호한 행정적 조치와 제재를 할 것”이라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영암역’ 영업 개시… 남해안권 철도 연결

영암군 지역경제 상승효과 기대

영암군에 사상 처음으로 열차역이 생겨 목포와 보성을 오가는 영암군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된다.

남해안권 철도망의 핵심축인 목포-보성선이 신보성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정식 개통함에 따라 ‘영암역’이 지난달 27일부터营业을 개시했다.

목포-보성선은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잇는

노선으로, 하루 열차는 평일 4회, 주말 5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역 신설로 그동안 철도를 이용하려면 목포나 나주 등 인근 역을 찾아야 했던 영암군민들은, 영암 내에서 바로 남해안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영암역 신설이 지역 물류 활성화, 관광 접근성 제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승효과를 불러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성대, ‘글로벌대학30’ 발탁

경성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성대는 앞으로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받아 K-컬처 중심 미래형 혁신 교육 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성대는 이번 사업에서 K-컬처 주요 분야인 K-MEGA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부산에 K-컬처 자립형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 지역에 총 4개의 MEGA 309 캠퍼스를 구축하고, 5개 해외 글로벌 센터를 설립해 부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